

# 광양시 “탱크터미널 허가 못한다”

두 차례 행정소송 불복 이번엔 민사소송 제기  
업체, 공사지연 손실금 20억 구상권 청구 검토

광양시가 광양 탱크터미널 업체 허가와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시 고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해 논란이다.

광양시는 지난해 6월(광주지법)과 11월(광주고법) 광양 탱크터미널과 진행된 행정소송 결과 잇달아 패소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월말 광양 탱크터미널 업체를 상대로 ‘소유권 등 기발소’ 민사소송을 순천지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시 행정신뢰도와 이미지 추락이 우려된다.

광양시는 광양 탱크터미널 전신인 미래에너지가 지난 2005년 처음 부지

취득시 농동창고 용도로 36억원(1만 8600㎡)에 매매계약 했는데, 실제로는 유류 탱크터미널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토지분양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광양 탱크터미널은 지난 2010년 2월 광양 길호 공유수면 매립지에 건축물 신축허가를 광양시로부터 받았지만 기초과일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시는 착공 7개월만인 같은 해 9월 “이 업체의 부지는 현재 조성 중인 해상공원과 인접한 곳이고, 관광지로 번보할 지역이어서 민관을 해친다”는 사유를 들어 공사 중지명령

을 내렸다.

이에 광양 탱크터미널 측은 곧바로 광양시를 상대로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 및 공작물 축조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 지방법원에 제기해 승소했다. 업체는 17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했다가 행정소송 승소뒤 2월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결국 법원이 광양 탱크터미널 측의 손을 들어줘 광양시는 행정력 실주의 대방부담과 함께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광양시 관계자는 “당시 선박용 금 유시설인 기름 저장탱크 9기를 건축하기 위해 파일을 박고 있어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면서 “2005년 길호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계약 목적과 상이한 업종을 사업자가 선택해 주진하고 있어 고문 변호인의 자문으로

소유권 등기말소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광양 탱크터미널 측은 “17개월 동안 공사가 중지돼 각종 경비와 영업비 등 손실액이 20억여원에 달해 정황을 봐서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겠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절차를 마친 후 사업관련 부지 정지작업 공사를 했는데, 허가자인 광양시는 공사가 위법하다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법해석 잘못 및 재량권 남용으로 행정신뢰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양 탱크터미널은 100억 원을 투입해 1만 8600㎡에 건축면적 505㎡·연건평 670㎡로 지상 2층 1동과 지상 1층 2동의 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나주 육묘사업장 개소  
시중 절반가 농가 공급

농촌지역이 고령화 등으로 일손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주에 공동 육묘사업장이 문을 열었다.

나주시는 지난 20일 산포면 현지에서 농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포농협 벽 자동화 유플러스 준공식을 가졌다.

육묘장은 2000여㎡ 규모로 11억 5000만원이 투입됐다.

육묘장은 해당 지역 농협이 맡아 운영하며 여기서 기른 육묘는 시중보다 최대 절반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된다.

그동안 농촌에서는 모내기 위함 농자리를 직접 만드는 데 일손을 크게 들었으나, 이제는 육묘장에서 생 산된 모종을 사다 쓰면 된다.

시는 육묘장 지원 규모도 2004년 336㎡, 2008년 1872㎡에서 올해는 크게 늘렸다.

시는 올해 봉황, 영산포에도 육묘장 건립을 추진중이다.

시는 공동 육묘장 사업과 함께 농 기계 임대사업, 항공방제 지원, 마을 공동 급식지원사업 등 농촌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펴고 있다.

임상훈 나주시장은 “육묘장은 벼 뿐만 아니라 고추와 배추 등 각종 엽채류 모종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광주유통센터 ‘양파 직거래장터’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21일 수원지구 광주유통센터에 ‘양파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양파 소비촉진에 발벗고 나섰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무안산 양파가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 저수지 90곳에 ‘인명 구조함’

농어촌公, 구명조끼·튜브 등 설치

올해 90여개소의 광주·전남 저수지에 인명 구조함이 설치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병운)는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앞두고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광주·전남 지역의 저수지와 방조제 등의 수리시설 90곳에 구명조끼와 구명튜브, 로프 등을 비치한 인명구

조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최근 운동과 산책 등 건강관리를 위한 야외 여가활동이 증가하면서 저수지 주변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전남지역본부는 지난해 광주·전남 26곳에 시범 설치 운영한 결과 안전 사고 예방효과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

다.

인명구조함은 익수사고 발생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설명법을 구조함 앞쪽에 그림설명이 되어 있어 위급한 상황시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운 전남지역본부장은 “저수지가 청정 농업용수 공급 뿐 아니라 지역민의 쉼터로서 아름답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보호 난간이나 울타리 교체 등 노후시설정비와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조선후기 방랑시인 김삿갓(본명 김병연·1807~1863)이 생전에 3차례 방문하고 6년간 머물렀던 화순군 동복면 구암마을에 ‘삿갓동산’이 조성됐다.

회순군은 지난해 2월부터 3억 7000

만원을 들여 구암마을 4000여㎡에 주

진해온 삫갓동산 조성 공사를 1년만

에 마무리했다.

삿갓동산에는 시인이 삫갓을 쓰고

전국 각지를 유람하는 모습의 동상과

시비 2기가 세워졌다. 시비에는 ‘고향

## 강진 ‘청자축제’ 세계로 세계로...

‘트래블 페어 인 오사카’ 참여

강진군이 ‘청자축제’ 해외 홍보 마케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들어갔다.

강진군은 최근 한국관광공사 오사카지사 주최의 ‘2012 한국 트래블 페어 in Osaka’에 참여, 현지 일본 여행업자와 랜드 여행사 및 매스컴, 일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관광공관 및 강진청자축제 등 문화관광축제를 홍보했다. <사진>



의 대상이 됐다.

군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시기(5월 12~8월 12일)에 강진청자축제(7.28~8.5)가 개최된다는 점을 최대 활용해 여수 엑스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오사카 설명회에 참석한 문진

희 주무관은 “현지인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축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주문과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었다”며 “일본에서의 홍보를 시작으로 중국, 미국 등 해외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 “홍길동·단풍축제 지역민에 더 가까이”

장성군 축전위 창립 총회…민간참여 유도

장성군이 지역축제를 민간주도로 바꿔 질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장성군은 ‘군 축전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장성군 축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축전위 구성은 축제에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한 축전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 지역 브랜드 이미지

부터 정기적 위원회 개최를 비롯해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군은 지난해부터 지역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를 민간위탁으로 추진, 그동안 행정주도에서 탈피한 축제운영으로 지역축제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양수 장성군수는 “상설화된 민간 축전위원회 운영으로 홍길동축제와 단풍축제 등 우리 지역 축제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화순 구암마을에

## ‘삿갓동산’

조선후기 방랑시인 김삿갓(본명 김병연·1807~1863)이 생전에 3차례 방문하고 6년간 머물렀던 화순군 동복면 구암마을에 ‘삿갓동산’이 조성됐다.

회순군은 지난해 2월부터 3억 7000

만원을 들여 구암마을 4000여㎡에 주

진해온 삫갓동산 조성 공사를 1년만

에 마무리했다.

삿갓동산에는 시인이 삫갓을 쓰고

전국 각지를 유람하는 모습의 동상과

시비 2기가 세워졌다. 시비에는 ‘고향



되자 않은 점을 바로잡기 위해 선생이 묻혔던 구암마을 뒷산을 ‘삿갓동산’으로 조성했다”며 “외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김삿갓 종명지(終命地)를 중심으로 유적지 문화 콘텐츠 사업 등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호남총판 광주 1호점**

# 안동 간고등어

오픈기념  
고등어먹고 제주도로!

10박스 이상 구매시  
제주도 왕복 항공  
여행상품권 증정 2인(2박3일)  
효도선물로 좋습니다!

안동간고등어  
선/물/박/스 ₩12,000~

제주도 2인 왕복항공여행권을 소지한고객만의 혜택

제주도 왕복항공여행권 무료여행권

영업 사원 및 딜러 대 모집

문의전화 1577-4929  
H.P 010-5760-9179  
www.honamgodunga.com

**아이엘리시아**

족석 프리미엄 뷔페

150여가지의 족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 수 있는 족석 프리미엄 뷔페!!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포츠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